



영유아의 발달신호를 알고 싶다면?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교사용
영유아발달체크도구
(K-SIED:T)



부모용
영유아발달체크도구
(K-SIE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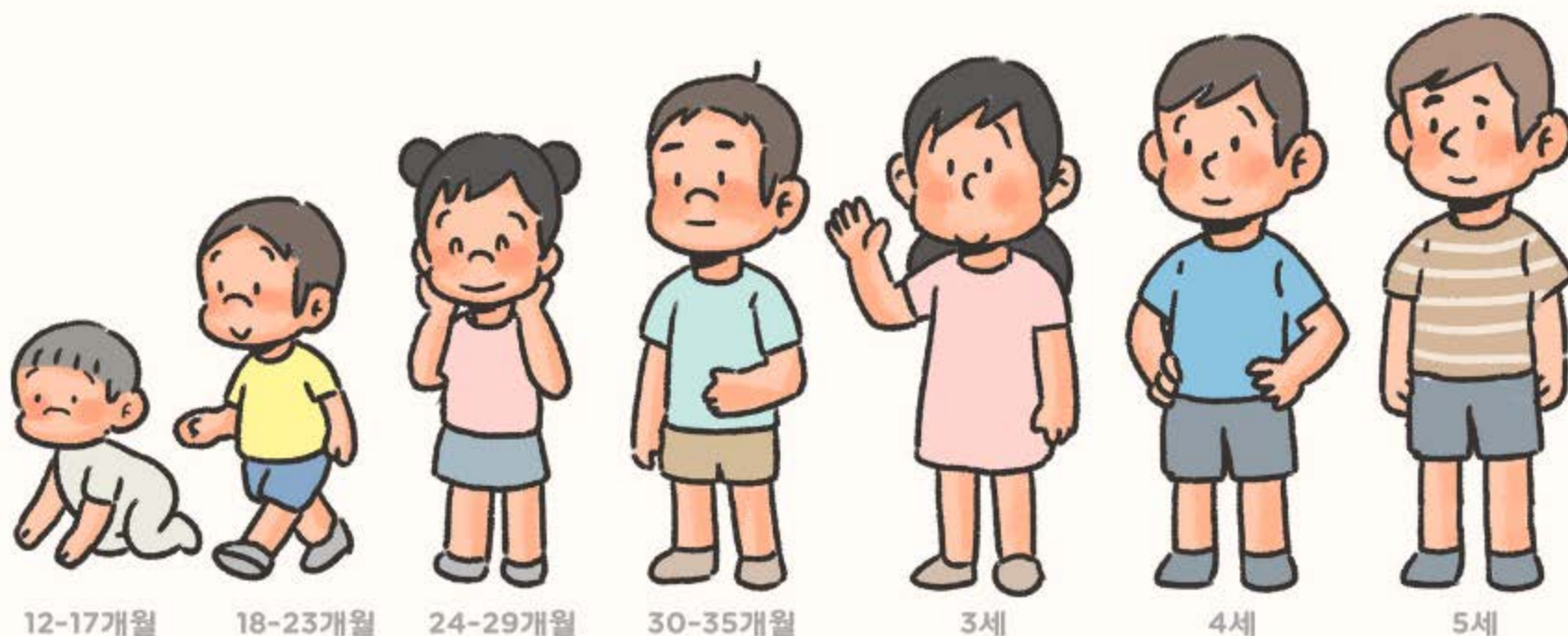


✓ K-SIED는 교육, 보육 현장과 가정에서
교사나 부모가 영유아의 발달을 **확인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육아정책연구소가 한국아동학회와 협력하여 개발한 **관찰 도구**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몇 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크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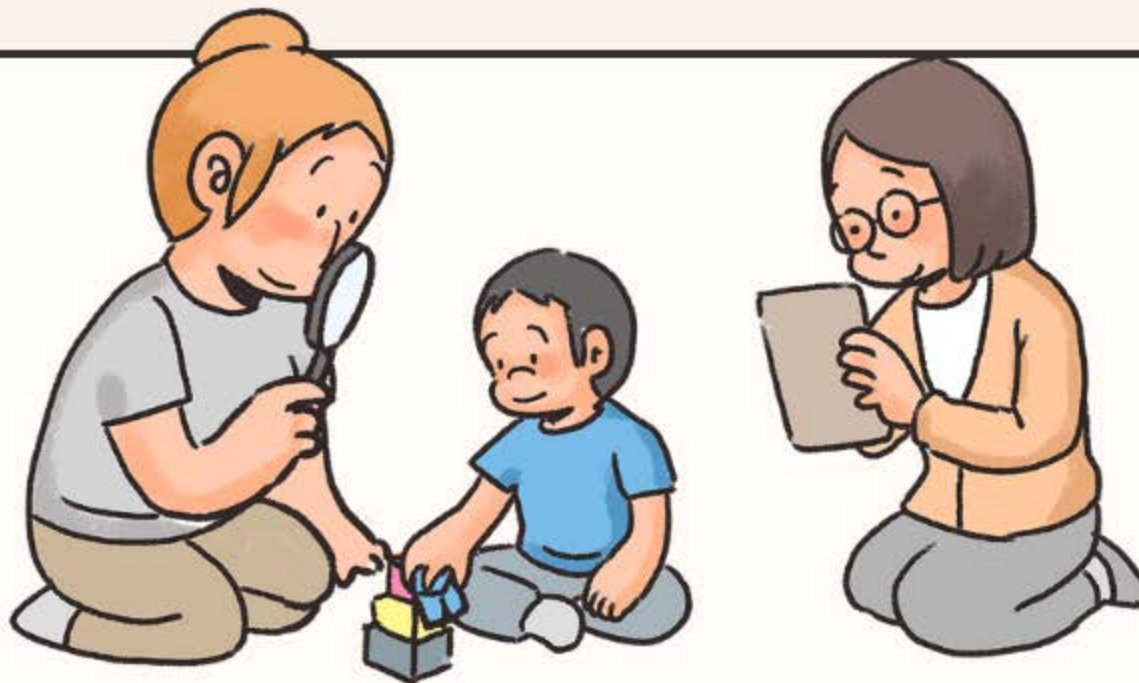


✓ 생후 12개월부터 만5세 영유아를 관찰하며 사용할 수 있어요!

(12-17개월,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3세, 4세, 5세의 연령군에 따라 확인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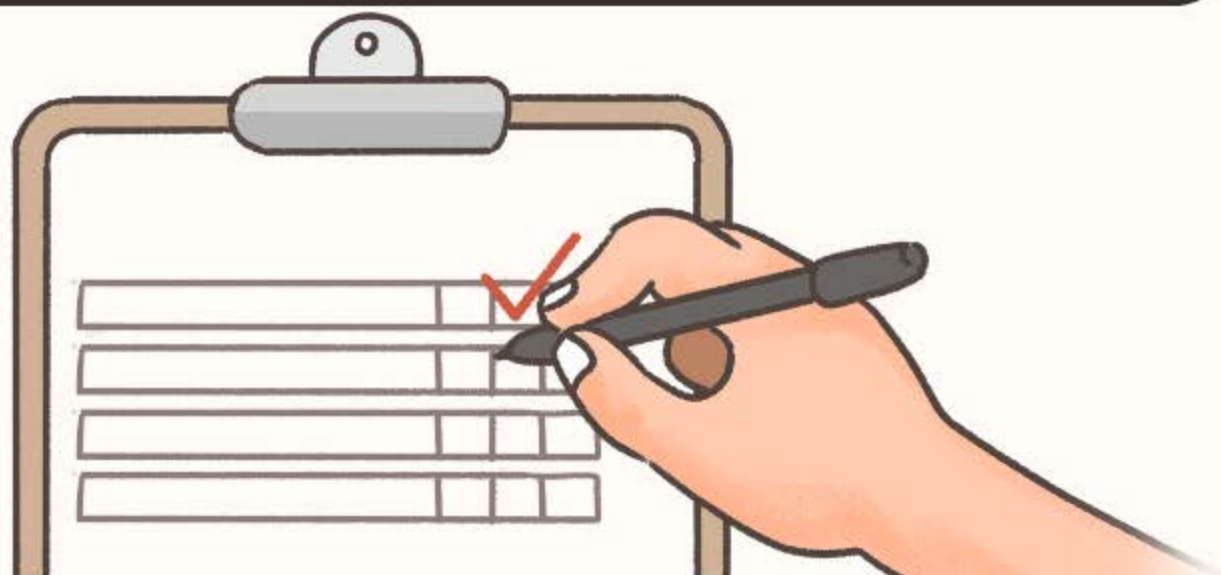
누가 검사할 수 있나요?



- ✓ 부모와 교사 모두 관찰하여 체크할 수 있어요.
영유아의 평상시의 행동을 일정 기간 관찰한 후,
문항에 응답하시면 좋아요.
연령군에 따라 아직 하지 못하는 행동도 있을 수 있으니,
결과 해석에 유의하세요.



K-SIED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 연령별로 약 40~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 문항은 7개 발달영역(인지, 수용언어/표현언어, 대근육운동/소근육운동, 사회정서, 자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알아볼 수 있어요.



K-SIED의 특징점은 무엇인가요?



- ✓ 교육·보육기관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과 속에서 영유아의 발달영역별 발달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검사결과를 기초로 기관과 가정에서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어요.



K-SIED는 교사와 부모가 소통하기 위한 도구예요.



- ✓ 교사와 부모가 유사한 문항을 통해,
기관과 가정이라는 다른 장면에서 영유아가 어떻게
관찰되는지 서로의 문항을 비교해볼 수 있어요!

K-SIED 문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까요?

1 먼저, 영유아의 월령을 계산해 적합한 검사지를 선택해요

2 일과중 영유아의 행동을 가지고 관찰해요

3 각 문항은 영유아의 행동에 대해 자주(2점), 가끔(1점), 전혀(0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 * 자주(2점)는 일관적으로 해당 행동이 관찰되고 도와주거나 시키지 않아도 자주 또는 대부분을 스스로 하는 행동을 말해요.
- * 가끔(1점)은 해당 행동이 여건에 따라 관찰되기도 하고 관찰되지 않기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도와주거나 시키지 않아도 가끔 수행하는 행동을 말해요.
- * 전혀(0점)는 해당 행동이 거의 보이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시행하지 않는 행동을 말해요.



K-SIED 문항을 보며 응답을 연습해 볼까요?

부모용 문항예시

※ 다음은 하루일과 중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항입니다.

A. 자녀가 실내에서 놀이나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어느 정도 보이는지 관찰해 체크해 보세요

			전혀	가끔	자주
인지	A01	가상놀이를 한다. (예: 소꿉놀이, 슈퍼맨놀이)	0	1	2
	A02	6조각 이상의 퍼즐을 맞춘다.	0	1	2
	A03	두 개의 사물 중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을 구분한다.	0	1	2
	A04	"둘"의 개념을 이해한다. (예: "사람이 두 명 있다." "책 두 권이 있다." "인형 팔이 둘 있다." 등의 개념이해)	0	1	2
	A05	사물을 5개 이상 센다.	0	1	2

교사용 문항예시

※ 다음을 하루일과 중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문항입니다.

A. 해당 유아가 자유 놀이를 하는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어느 정도 보이는지 관찰해 체크해 보세요

			전혀	가끔	자주
인지	A01	교사나 친구와 함께 역할놀이를 한다. (예: 가게놀이)	0	1	2
	A02	6조각 퍼즐을 맞춘다.	0	1	2
	A03	5까지의 수를 센다.	0	1	2
수용언어	A04	교사가 사물의 명칭(예: 동물, 과일, 놀이 등)을 말하면 그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	0	1	2
표현언어	A05	친구와 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문장으로 말한다. (예: "나는 이게 좋아.")	0	1	2



표준화를 통해 규준과 임상적 변별도도 살펴보았어요

자폐성 장애, 언어지연, 뇌성마비-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ROC 분석을 했어요.

교사용과 부모용 모두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사회정서는 .997을,
언어지연은 교사용(수용언어 .846, 표현언어 .833)
부모용 (수용언어 .905, 표현언어.960),
뇌성마비-발달지연은 교사용(대근육 .985, 소근육.848),
부모용 대근육 .989, 소근육 .978로 높은 변별력을
보여 주었어요.

검사 결과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양호

아이가 정상발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관심

아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영유아가 해당
영역과 발달에 대한 경험을 해 보도록 지원해요.

주의

주의가 필요한 단계. 발달지연의 확진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발달영역이 양호군이라면?

해당 발달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 자극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지켜봐주어야 해요!

정상 발달 범주에 있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아동의 발달상태를 꾸준히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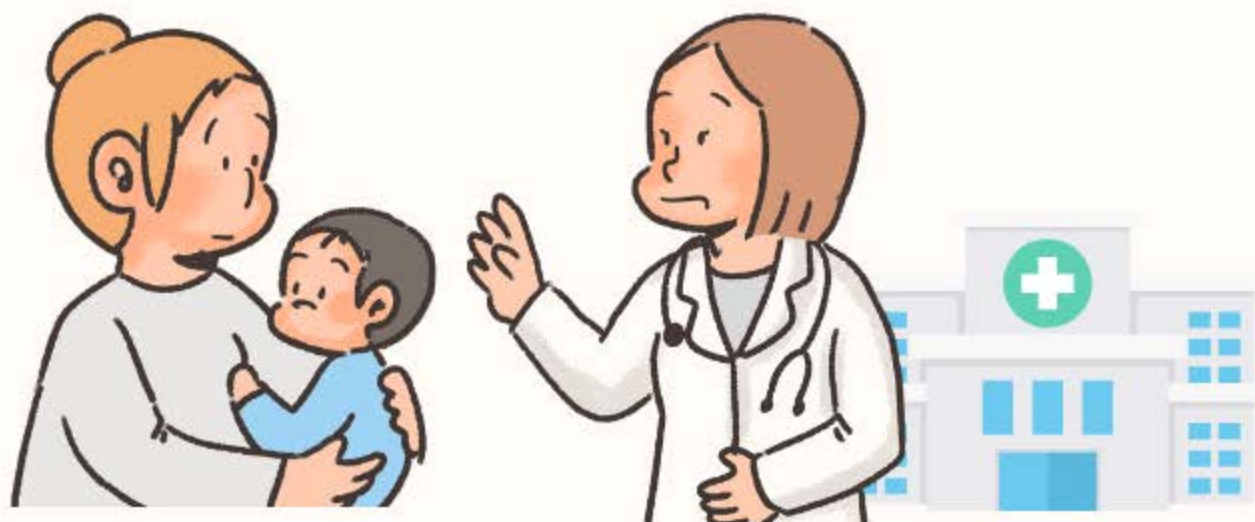
발달영역이 관심군이라면?

해당 발달영역에서 연령에
적절한 발달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교사와 양육자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발달을 지원하는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 해요!
또한, 면밀히 관찰하면서
6개월 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달영역이 주의군이라면?

해당 발달영역에서 전문가의
심도있는 정밀평가를 받기 위하여
아동발달전문기관에 방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활의학과, 소아정신과, 아동발달센터 등)



영유아의 발달 속도에 대해 더욱 일찍 알수록 더욱 적절한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뇌의 가소성이 높은
영유아기일수록

적절한 조기 개입이
이후의 건강한 발달에
효과적이에요!

